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금품선거' 얼룩

# 후보·당선인 줄줄이 수사

현금·한우·양주 살포... 위법행위 725명 적발  
 식대 대접받은 조합원들 15배 과태료 물기도

지난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살포하고 고가의 양주 등을 돌린 후보자와 당선인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광역시와 한 축협 조합장 후보자는 지난 1월 조합원과 그 가족 등 12명에게 오만원권 지폐를 돌돌 말아 악수하는 척 하며 주는 등 총 6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한 농협 조합장은 부인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조합원 11명에게 635만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북 한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자 A(60)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행원 B씨 등을 시켜 조합원 100명에게 1인당 20만~100만원씩 모두 5천여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받고 있다.

홍성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설 예정이던 C씨는 지난해 4월 "선거 때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후보자로부터 금품 살포를 부탁받고 630만원을 받아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D(59)씨는 지난 4일 경남 창원 한 농장에서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지인으로 부터 조합원 명부와 현금 63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D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자 후보를 사퇴한 E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양 양주나 한우, 각종 선물세트들 돌리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증명 모 조합 당선인은 조합장 재직 시절인 2017년 1월 조합원 15명에게 각 1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낸 혐의로 고발됐다.

경기도 파주 지역 현직 조합장도 지난 1월 지인의 집을 방문해 13만원 상당의 양주를 건네고 "조합장 선거 잘 부탁한다"고 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북 전주에서는 한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선물세트 200개를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나 자신을 홍보하는 명함, 연하장 등을 배포해 수사를 받는 후보자도 많았다.

전북 김제에서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30여장이 배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11월 선거에 출마한 현직 조합장에게 15만 9천원 상당의 점심과 과일을 제공받아 조합원 3명이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1인당 받은 음식물 가격 5만3천원의 15배인 79만5천원씩 총 238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경찰청 수사 결과 위법행위 적발자는 725명이었고, 이중 4명은 구속, 14명은 기소의견 검찰 송치, 57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654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 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한 '금품선거'가 472명(65.1%)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방법 위반 148명(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88명(12.1%) 순이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은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태엽 기자 esaca@



노란 봄빛세상 14일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군락지 마을 일원이 노란빛으로 물들어있다. 산동면에서는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열린다. /연합뉴스

## 전남도, 6년 만에 올겨울 가축전염병 '제로' 눈앞

### 구제역 2000년부터 청정지역 유지... 2013년부터 발생한 AI는 올해 '비발생'

전남도가 올 겨울철 6년만에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비발생 원년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3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 결과 전남에서 구제역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방역에 대한 강한 관심과 의지, 방역 관계자 및 농가의 협력시스템이 들어맞았다는 분석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평소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는 자연재난보다는 방역의식 해이에 의한 인적재난에 가깝다"며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는 방역공직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행정과 축산농가의 협력과 역할분담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와 공직자의 협력과 소통,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결의대회를 주

문, 지난해 9월 결의대회에 직접 참석해 청정지역 유지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주면서 "결실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관장의 관심에 힘입어 도, 시군 방역공직자와 축산농가는 구제역과 AI를 막기위해 방역활동에 총력을 펼쳤다.

국내 육지부 유일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전국 최초 백신비용 100% 보조 지원 및 소규모·영세농가 집중 지원 △1월 말 경기와 충북에서 구제역 발생하자 즉시 소와 돼지 전 두수 긴급접종 완료 △경기와 충북, 충남 위험지역 가축 반입 제한 △도내 가축시장 15개소 일시 폐쇄 △거점 소독시설 전 시군 확대 등 새로운 차단방역 조치를 과감히 취했다.

또한 AI 비발생 원년 발판을 위해 △반복 발생 및 밀집지역 50농가 휴지기제 시행 △전국 최초로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에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 추진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장 20개소 앞에 방역초소 설치 △종오리 42농가 도 1농가 1담당제 △계열사 역할 및 책임방역 강화 등 다른 시·도에서는 시행하지 못하는 전남만의 맞춤형 방역정책을 시행했다.

김 지사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차단방역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게 지난해 10월부터 23억 원의 방역예산을 지원했다.

서은수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김영록 지사 취임이후 의지와 관심, 축산농가와 방역공직자의 소통과 협력으로 구제역과 AI 동시 비발생 원년 달성이 현실화됐다"며 "과학에 근거한 효율적 차단방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동물방역 및 축산물 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전두환, 5.18 당시 특수 공작부대 운영"

### 5·18기록관 "광주를 폭동 도시로 몰기 위해 공작"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특수 공작부대를 광범위하게 운영하며 광주를 폭동도시로 몰기위해 공작을 펼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5·18기록관에 따르면 전씨는 80년 5월 19일 홍모 대령을 비롯한 보안사 핵심 인물 4명을 광주로 파견해 정보 수집과 공작 활동을 지시했다.

이 가운데 광주 출신인 홍 대령은 광주 사동 천적 집에 비밀 아지트를 차려놓고

광주 시내에서 활동 중인 편의대(便衣隊)를 통한 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대란 군인들이 사복 차림으로 위장해 적지에서 몰래 활동하며 공작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 부대다.

나의갑 5·18기록관장은 "5·18편의대는 시위현장에 잠입해 홍 대령의 기획팀이 생산한 각종 공작 아이템을 실행에 옮기는 행동부대였다"고 평가했다.

군인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포섭한 편

의대를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사가 작성한 '광주소요사태 분석' 등의 군 기록에도 전두환 신군부는 다수의 편의대를 운용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또 아시아자동차공장 자동차 탈취 사건도 편의대의 소행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이 공장은 방위산업체로 보안목표 '가급'인 중요 시설이었다"며 "이런 시설을 방호하지 않았다는 건 군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나 광장은 "5·18이 발생한 지 39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 누구도 편의대의 실체를 속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며 "편의대를 자세하게 조사하면 광주의 진실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www.samchully.co.kr

## 삼천리가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나아갑니다.

삼천리는 도시가스, 열, 전기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더 큰 성장을 위해 고객과 함께 더 멀리 나아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42

에너지에서 환경까지  
미래를 창조하는 삼천리